

## 출애굽기 4:10의 번역 제안과 이해 — “입이 뻗뻗하고 혀가 둔한 자”를 중심으로 —

장석정\*

### 1. 서론

우리나라 최초의 신구약 번역 성경은 1911년에 나온 『성경전서』다. 따라서 구약성서의 경우에 있어서 히브리어 본문(MT)을 어떻게 번역했는지에 대한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다. 물론 번역할 당시 선교사들과 한국인 조사들이 히브리어 본문에서 직접 번역했는지는 알 수 없으며, 그 가능성이 낮은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영어 성경, 중국어 성경, 일본어 성경 등을 참고했을 것으로 본다.

일반적으로 가장 처음 번역된 성경에는 아무래도 번역상의 오류가 많이 있을 것이며, 후대로 가면서 개정된 번역들은 보다 원문에 가깝게 번역되기 마련이다. 그러나 이 논문에서 다루게 될 출애굽기 4:10의 표현(“입이 뻗뻗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의 경우에는 오히려 1911년의 최초의 번역(“입도 둔하고 혀도 둔한 자니이다”)을 1938년에 개정된 『성경개역』이 수정한 채로 지금까지 그대로 그 번역이 답습되어 내려오고 있는 현상이 발생했다. 물론 『성경전서』의 번역에 오류가 있어서 1938년의 『성경개역』이 이를 바로잡았다면 문제는 전혀 없을 것이지만, 오히려 『성경전서』의 번역이 더 히브리어 원문의 의미를 잘 번역했는데도 불구하고, 『성경개역』은 이를 무슨 이유에서인지 ‘다르게’ 번역했다는 것은 심각한 의미상의 문제를 야

\* Claremont Graduate University에서 구약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음. 현재 가톨릭관동대학교 구약학 교수. [schang15@cku.ac.kr](mailto:schang15@cku.ac.kr).

기하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이런 문제의 본질을 검토해 보고, 더 나은 번역을 제안하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4:10의 표현이 어떤 의미인지에 관한 합리적인 ‘이해’를 도모하고자 한다.

## 2. 출애굽기 4:10 표현의 번역 제안

### 2.1. 한글 성경들과 MT

출애굽기 3:7-10에서 여호와께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는 사명을 맡기시겠다고 말씀한다. 이런 여호와께의 말씀에 대하여 모세는 무려 다섯 번이나 부정적인 응답을 하고 있다(3:11, 13; 4:1, 10, 13).<sup>1)</sup> 이 중에서 네 번째 부정적인 응답이 4:10에 나오고 있다. 여기서는 앞뒤의 문맥을 이해하기 위해서 출애굽기 4:9-17의 본문을 함께 인용하고자 한다.

9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네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 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네가 떠온 나일 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10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뻗뻗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11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 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12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13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14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네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 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15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네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16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네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 같이 되리라

17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sup>2)</sup>

1) 장석정, “『성경전서』(1911)의 번역대본 가능성 — 출애굽기 4:13을 중심으로 —”, 『성경 원문연구』 48 (2021), 8.

2) 본 논문에서 인용된 한글 번역은 달리 표기되지 않았으면, 『개역개정』에서 가져온 것이다.

이 본문(출 4:9-17)에 앞서 모세가 여호와와 말씀할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할 때, 그들이 그의 말을 믿지 않고 여호와가 나타나신 것을 거짓이라고 말할 것을 두려워하는 상황이 먼저 나온다(4:1). 즉, 여호와는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게 하고 모세의 손에 나병이 생기는 등의 이적을 보여주지만(4:2-7) 여전히 모세가 확신을 갖지 못하는 것을 보고, 9절에 셋째 이적에 관해서 말씀하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절에서 모세는 자신이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나는 입이 뻗뻗하고 혀가 둔한 자”(4:10)라고 말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4:10의 이 표현에 초점을 맞춰서 과연 이런 한글 번역이 본래의 히브리어 본문의 뜻을 제대로 전달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더 나은 번역을 제안하게 될 것이다. “나는 입이 뻗뻗하고 혀가 둔한 자”라는 번역에 대한 MT와 다양한 우리말 번역들은 아래와 같다.

(출 4:10)

MT

כִּי כִבְדֹתָהּ וּכְבֹד לְשׁוֹן אָנֹכִי

- 『성경전서』(1911) 입도 둔하고 혀도 둔한자이다
- 『성경개역』(1938) 입이 썩썩하고 혀가 둔한자이다
- 『개역한글』(1961) 입이 뻗뻗하고 혀가 둔한 자이다
- 『개역개정』(1998) 입이 뻗뻗하고 혀가 둔한 자이다

우리말 성경들에서 볼 수 있는 변화는 1911년판에는 “입도 둔하고 혀도 둔한 자이다”라는 번역이 1938년판에는 갑자기 “입이 뻗뻗하고 혀가 둔한 자이다”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현재까지 계속 그 번역이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런 변화가 일어났던 것일까?

전반부만 “입이 둔하고”에서 “입이 뻗뻗하고”로 바뀐 것인데 후반부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렇게 전반부만 수정한 것은 전반부와 후반부에 쓰인 단어가 *kbd*라는 똑같은 히브리어이기 때문에 더욱더 의아하게 생각된다. 물론 문맥이 달라지면, 그 문맥에 맞게 같은 히브리어 단어라도 우리말로 다르게 번역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이 4:10의 경우처럼 한 문장 안에서 동일한 히브리어 단어가 두 번 사용되었는데, 서로 다른 한국어로 번역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으며, 더구나 1911년에 처음 우리말로 번역될 때, 같은 단어로 번역된 것을 굳이 다른 단어로 수정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여기서 이해를 돕기 위해 “나는 입이 뻗뻗하고 혀가 둔한 자이다”라는

표현이 포함된 4:10 전체를 비교분석하기로 한다.

MT

וַיֹּאמֶר מֹשֶׁה אֶל־יְהוָה בִּי אֲדֹנָי לֹא אִישׁ דְּבָרִים אֲנִי גַם מִתְמוּל גַּם מִשְׁלֵם  
גַּם מֵאֵז דְּרָרָךְ אֶל־עַבְדְּךָ כִּי כְבֹד־פָּה וְכֹבֵד לְשׁוֹן אֲנִי

사역

그러나 모세는 여호와께 말했다. “오, 나의 주님! 저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전에도 그랬고 당신께서 당신의 종에게 말한 후에도 그렇습니다. 저는 입이 무겁고 혀도 무겁습니다.”

『성경전서』(1911)

모세가 여호와와의 옛즈오디 주여 이전에나 종을 명하신 후에나 구변이  
업서 입도 둔하고 혀도 둔한자니이다 하니

다른 것은 MT와 유사하게 번역되었지만, “구변이 업서”라는 부분이 MT에서는 먼저 나오는데 비해, 여기서는 “후에나” 이후에 나오도록 번역했다는 점이 어순에 있어서 MT와는 차이가 난다.

『성경개역』(1938)

모세가 여호와와의 고하대 주여 나는 본래 말에 능치못한자라 주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후에도 그러하니 나는 입이 셋셋하고 혀가 둔한자  
니이다

이 성경은 “입이 셋셋하고”라고 수정한 것뿐만 아니라, MT에 없는 “본래”도 삽입하고,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만 번역해서 『성경전서』와 MT에 있는 “이전에나”(mšlšm)의 번역을 빠뜨리고 있다.

성서공회에서 2021년에 출판된 『취리히성경해설 성경전서 개역개정판』에 따르면, 4:10의 모세의 이 표현은 자신이 말하는 능력이 부족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본다. 즉, 모세가 이집트 사람이기 때문에 히브리어를 잘하지 못한다거나 말을 더듬거린다는 것으로 이해된다고 해설해 놓았지만, 모세가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신 것을 되돌리려고 온갖 핑계를 찾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되어 있다.<sup>3)</sup> 이런 모세의 핑계는 생똥맞은 것이라고 하면서 신명기에 총 30장에 걸쳐서 모세의 고별 연설이 들어 있는 점을 들어서 모

3) 『취리히성경해설 성경전서 개역개정판』 (서울: 대한성서공회, 2021), 86.

세가 말을 잘 못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본다.<sup>4)</sup> 그러나 신명기 본문은 후대에 기록되고 편집된 것이라고 본다면, 실제로 모세가 말을 잘했다고 볼 수 있는 결정적인 근거는 없는 셈이다. MT의 본문 내용에 근거해서 보면 이 논문에서 다루고 있는 모세의 주장(‘입이 무겁고 혀도 무겁다’)의 의미는 히브리어나 이집트어를 못한다는 것보다는,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하는 데 있어서 서툴다는 뜻으로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이집트 궁중에서의 성장과정을 감안하면 여전히 그가 말 자체를 잘 못하는 사람이라고 보기 힘들다고 보는 사람도 있지만, 이집트 궁중에서의 교육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모세는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었을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모세의 표현이 담고 있는 의미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그런데 이렇게 4:10 전체를 놓고 보면, 이미 전반부에서 “나는 [본래]<sup>5)</sup>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다. 즉, 후반부의 표현인 “나는 입이 뻗뻗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는 이 전반부의 표현과 연관성을 갖고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결국 모세가 이 표현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자신이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인 것이다. 아직 장애가 있어서 그런 건지 혹은 원래 말주변이 없어서 그런 건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적어도 히브리어를 하는 데 서툴다는 의미로 보기는 힘들다고 생각된다. 동시에 『개역개정』의 “입이 뻗뻗하고”라는 수정된 번역은 마치 모세가 입에 장애가 있어서 말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정사실처럼 표현하는 것이어서 더더욱 수정 번역되어야 할 것이다.

## 2.2. LXX

10 εἶπε δὲ Μωϋσῆς πρὸς Κύριον· δέομαί Κύριε οὐχ ἰκανός εἰμι πρὸ τῆς χθῆς οὐδὲ πρὸ τῆς τρίτης ἡμέρας οὐδὲ ἀφ’ οὗ ἤρξω λαλεῖν τῷ θεράποντί σου· ἰσχνόφωνος καὶ βραδύγλωσσος ἐγὼ εἰμι.<sup>6)</sup>

(그러나 모세는 주님께게 말했다, “제발 주님, 저는 무능력한 사람입니다. 이전에도 그랬고 당신께서 당신의 종에게 말한 후에도 그렇습니다. 저는 목소리가 약하고 말이 느린 사람입니다.”)

4) Ibid.

5) MT에 사용되지 않은 단어는 이렇게 [ ] 표시를 사용해서 구별했다.

6) 하우트만(C. Houtman)은 이 부분을 “더듬는 목소리와 느린 말투”(with a stuttering voice and a slow tongue)로 번역하고 있다. C. Houtman, *Exodus*, vol. 1, HCOT (Kampen: Kok Publishing House, 1993), 408.

고대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 연설을 하려면 목소리가 강해야 하는 것은 기본이다. 따라서 LXX에서 “저는 목소리가 약하고 말이 느린 사람입니다”라고 번역한 것은 이런 상황에 맞게 번역된 것으로 보인다.<sup>7)</sup> LXX의 번역에서도 MT에서 사용된 *kbd*의 뜻을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단어는 찾을 수 없으나, ‘약하고 느리다’는 뜻을 넣어서 번역하고 있다.

### 2.3. 영어 성경들

KJV(1611) And Moses said unto the LORD, O my Lord, I am not eloquent, neither heretofore, nor since thou hast spoken unto thy servant: but I am slow of speech, and of a slow tongue.[b]

b.Verse 10: eloquent: Heb. a man of words

ERV(1881) And Moses said unto the LORD, Oh Lord, I am not eloquent, neither heretofore, nor since thou hast spoken unto thy servant: for I am slow of speech, and of a slow tongue.

ASV(1901) And Moses said unto Jehovah, Oh, Lord, I am not eloquent, neither heretofore, nor since thou hast spoken unto thy servant; for I am slow of speech, and of a slow tongue.

KJV, ERV, ASV는 히브리어 *peh*를 mouth가 아니라, speech로 번역했다. 현대 영어 성경들도 역시 mouth 대신 speech를 사용해서 번역하고 있다.<sup>8)</sup> 즉, 히브리어는 입이 무겁다고 표현했으나, 영어 번역에서는 ‘말이 느리다’는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다.

7) 모세가 그의 선천적인 장애로 인해서 말을 더듬고, 어떤 발음들은 하기 힘든 상태였다고 이븐 에즈라(Ibn Ezra)는 본다. 이런 해석이 타르굼 위-요나단(TpsJ)과 타르굼 네오피티(TNf)의 번역에도 배경이 되었을 것이다.

*hgr pm hgr mull* (=lame of mouth and lame in speech)은 우리말로 번역하면 ‘장애가 있는 입과 말하는 데 장애가 있다’는 뜻이 된다. 또한 VUL 번역을 보면 비유적인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impeditioris et tardioris linguae sum*은 ‘나는 두뇌회전이 빠르지 않고 말도 느리다’(I am not quick-witted and slow of speech)로 번역될 수 있다. C. Houtman, *Exodus*, 408. 또한 페쉬타역(Syr)은 “stammering of speech and difficult of tongue”이라고 풀어서 기록했다. W. H. C. Propp, *Exodus 1-18*, AB 2 (New York: Doubleday, 1999), 211.

8) NET I am slow of speech and slow of tongue  
 NRS I am slow of speech and slow of tongue  
 NJPS I am slow of speech and slow of tongue

KJV와 ASV는 말이 느리고 혀도 느리다는 뜻으로 번역하고 있다. 결국 어눌하게 말하는 것을 표현하는 번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성경전서』의 번역과는 다른 어감을 전달해 주지만, ‘느리다’는 것과 ‘둔하다’는 것은 서로 호환될 수 있는 단어들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성경전서』의 번역은 일단은 영어 성경의 영향을 부분적으로 받았다고 판단된다.

히브리어 *kbd*(heavy)의 의미를 그대로 번역하지 않고 의역해서 ‘언변이 없다’ 혹은 ‘어둔(語鈍)하다=말이 둔하다’의 뜻으로 번역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하면 모세가 히브리어라는 언어 자체를 서툴게 한다는 뉘앙스가 약해진다. 또한 slow of speech라는 표현은 ‘말을 더듬다’ 혹은 ‘입이 무겁다’(말수가 적다?)는 의미를 나타내기도 한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출애굽기 4:10은 출애굽기 3장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 시키라는 사명을 맡으라고 말씀하신 것(3:10)<sup>9)</sup>에 대한 모세의 네 번째 부정적인 응답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 10절에는 이해하기 힘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 구절의 의미를 파악하기 힘든 것이 사실이다. 우선 첫째로 모세가 자신은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라고 토로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내러티브의 현재 시점은 모세가 이집트에서 도망쳐서 미디안으로 온 후 이드로 집안의 첫째 딸과 혼인하고 시간이 꽤 흘렀을 시점이다. 그렇지만 이집트에서 살던 때는 모세가 왕자의 신분이었기에 당시 최고의 교육을 받았으리라고 짐작할 수 있다. 즉, 고대 사회 지도자들에게 필수적이었던 웅변술 교육도 당연히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정작 모세 자신은 [본래] 말을 잘 못한다고 여호와께 이야기 하고 있는 것이다. 이 점이 우선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다.

둘째로 주의 종인 모세 자신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 시키라고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말을 잘 못한다고 하는 부분의 의미이다. 그렇다면 모세는 원래 말을 못하는 상태인데, 이제 여호와께서 출애굽의 사명을 주신 후에는 그 사명을 완수하는 데 필수적인 말 잘하는 기술이 생겨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말인가? 그만큼 여호와의 능력을 믿었다는 말이 된다. 즉, 본래 말을 잘 못하는 본인이 이제 출애굽 사명을 받았으니, 거기에 필요한 능력인 능숙한 말재주를 갑자기 갖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는 말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지금 당장 모세에게 이런 말 잘하는 능력이 생겨야 한다는 사고방식의 근거를 추론해 보면, 모세는 말만 잘 할 수 있으면 출애굽의 사

9) (출 3:10)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명을 맡을 수 있다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 된다.

셋째로 모세가 말한 “입이 뻗뻗하고 혀가 둔한 자”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우선 이런 표현을 요즘 쓰지 않는데, 1998년에 『개역개정』이 이렇게 번역한 이유는 무엇인가? NRS는 “I am slow of speech and slow of tongue”<sup>10)</sup>이라고 번역하고 있으며, 개로웨이(K. Garroway)는 “I am heavy(*kbd*) of speech and heavy(*kbd*) of tongue”으로 번역하고 있다.<sup>11)</sup> 먼저 NRS의 번역에서 ‘느린’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kbd*는 ‘무거운’(heavy)의 뜻으로 종종 번역된다.<sup>12)</sup> 그렇지만 문맥에 따라서 ‘느린’의 의미도 있을 수 있다. 따라서 NRS는 ‘나는 말이 느리고, 혀도 느린 사람입니다’의 뜻이 된다. 결국 말을 느리게 하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말하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의미를 전달하고 있다. 이것은 출애굽기 4:10의 경우에 있어서도 모세가 말을 잘 못하는 것을 표현한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된다.

## 2.4. 일본어 성경과 중국어 성경 분석

### 2.4.1. 일본어 성경

<메이지역>(1887)

10 モーセ、エホバにいひけるはわが主よ我は素言辭に敏き人にあらず汝が僕に語りたまへるに及びても猶しかり我は口重く舌重き者なり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일본어 표현은 口重く舌重き者なり이다. 여기서 口重은 ‘말씨가 느림, 입이 무거움’의 의미를 갖고 있다. 따라서 이 표현을 직역하면, ‘입이 무겁고 혀가 무거운 자니이다.’가 된다. 즉, <메이지역>은 MT를 있는 그대로 번역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혀가 무겁다’는 말은 일본어에서 좀처럼 사용하지 않는 표현이지만, MT의 의미를 그대로 번역하려고 애를 썼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해 준다. <메이지역>(1887)은 『성경전서』(1911)보다 20년 이상 먼저 번역된 성경인데, 히브리어 본문의 단어 *kbd*를 그대로 사용해서 번역하고 있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10) NJPS(The Jewish Publication Society, 1988) 에도 NRS와 똑같이 번역되어 있다.

11) K. H. Garroway, “Moses’s Slow Speech: Hybrid Identity, Language Acquisition, and the Meaning of Exodus 4:10”, *Biblical Interpretation* 28 (2020), 635. (635-657)

12) *kbd* 라는 어근은 모든 셈족어(Semitic languages)에서 발견되고 있으며, ‘무겁다’ 혹은 ‘중요하다’는 의미를 갖는다. *TDOT* 7, 13.



<구어역>(1955)

モーセは主に言った、「ああ主よ、わたしは以前にも、またあなたが、しもべに語られて から後 も、言葉の人ではありません。わたしは口も重く、舌も重いのです」。

(Moses said to the LORD, “O Lord, I am not a man of words before and after you have been spoken to by a servant. I have a heavy mouth and a tongue. It’s heavy.)

<구어역>은 물론 연도로 보면 『성경전서』나 『성경개역』의 번역에 영향을 줄 수 없었다. 그러나 일본어 성경의 번역의 흐름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메이지역>과 비교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함께 살펴보기로 한다. <구어역>에서도 <메이지역>에서와 같이 “重”이라는 글자가 사용되었다. 물론 표현이 口も重으로 바뀌어서 ‘입도 무거움’이라는 뉘앙스를 전해주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 의미는 <메이지역>과 동일하다고 하겠다. 여전히 “입도 무겁고 혀도 무겁다”로 번역하고 있어서 MT의 본문을 직역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도 우리가 주목하는 표현은 口も重く `舌も重인데, 이를 직역하면, “입도 무겁고, 혀도 무겁습니다.”라는 뜻이 된다. 그리고 이것을 의역하면, “말 주변이 없습니다.”가 된다. 일본어에서 입이 무겁다는 표현은 ‘과묵하다’는 뜻으로 쓰인다.

#### 2.4.2. 중국어 성경<sup>13)</sup>

(馬殊曼譯本經文) Marshman’s Version(1822)

摩西稟耶賀華曰。主乎。汝未諭汝僕之前。我已非便佞。嗣後亦然。予實口舌不利也。

<마쉬맨역>은 ‘무거운’이라는 뉘앙스를 주는 단어는 사용되지 않았고, 단지 ‘입과 혀의 상태가 나쁘다’는 의미를 전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말을 해도 나에게 불리하게 된다는 의미를 갖기 때문에, 결국 전하고자 하는 내용을 제대로 전달할 수 없다는 뜻이 된다. 결국 입과 혀가 잘 돌아가지 않는 상태라는 뜻으로 볼 수 있다.

(神天聖書經文) Morrison’s Version(1823)

時摩西向神主曰、我神主歟、我非有口才之人、且汝與爾僕講之先之後皆未有也、乃我遲語亦舌遲也

13) 중국어 성경 번역에 관해서는 다음을 참고하라. 요우빈, “왕타오, 중국어 성경 번역과 그의 해석학 전략”, 구향화, 이환진 역, 「성경원문연구」 37 (2015), 273-291.

<모리슨역>에는 ‘말하는 것이 너무 느려서 말을 할 수 없다’는 뜻으로 번역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역시 *kbd*의 ‘무거운’이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단어는 사용되지 않고 있다. 이 중국어 성경은 영어 성경의 번역(slow)을 따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쉬맨역>과 <모리슨역>까지는 아직 拙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지 않고 있으며, 입에 문제가 있어서 말하는 것이 느리다는 쪽으로 번역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성경전서』의 번역인 “입도 둔하고 혀도 둔한자니이다”는 이 두 성경의 영향을 받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文理委辦譯本經文) <대표역본>(1856)

摩西籲耶和華曰、我主、自昔迄今爾命我之時、我無能措辭、拙於口病於舌。

(I was too sick of speech and tongue.)

다른 중국어 성경들과는 다르게 <대표역본>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病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비록 病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으나, 실제로 병이 있다는 뜻이 아니라, **말을 제대로 못해서 내용 전달이 잘 되지 않는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즉, 어눌하게 말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결국은 모세가 ‘말주변이 없다’는 의미가 된다. <대표역본> 이후에 나온 <브리지만-컬벗슨역>(1864)이나 <쉐레쉐브스키 관화역본>(1875), 그리고 <쉐레쉐브스키 쉬운 문리역>(1902)은 모두 “拙”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번역함으로써, 입과 혀가 ‘둔하다’는 의미를 살려주고 있다. 그러므로 이런 중국어 성경들의 영향을 받아서 『성경전서』(1911)도 “입도 둔하고 혀도 둔한자니이다”라고 번역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개역』(1938)이 갑자기 “입이 셋셋하고 혀가 둔한자니이다”로 수정한 것은 중국어 성경의 영향에서 벗어나려는 시도였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정확한 근거는 어떤 중국어 성경에서도 찾을 수 없다.

(裨治文譯本) <브리지만-컬벗슨역>(Bridgman-Cullbertson's Version, 1864)

摩西謂耶和華曰、我主歟、向者我無能措詞。迄今爾命爾僕之後亦然。

我乃拙於口、拙於舌者。

여기서 拙於口라는 표현은 ‘말씀씨가 서툴다’의 뜻을 나타낸다. 한자 拙은 ‘서투르다, 우둔하다, 둔하다’ 등의 의미를 갖고 있다. 여전히 1911년의 『성경전서』가 “입도 둔하고 혀도 둔한자니이다”로 번역한 것을 1938년의 『성경개역』에서 “입이 셋셋하고 혀가 둔한자니이다”로 수정해서 번역하게 된 이

유를 중국어 성경의 번역과 비교해서는 알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브리지만-꿀벗슨역>은 ‘말이 어눌해서 제대로 내용을 전달할 수 없다’는 의미를 보여주고 있으며, 결국 이것도 ‘말주변이 없다’는 뜻이 된다.

**北京官話譯本經文 <쉐레쉐브스키 관화역본>(1875)**

摩西對主說、我主阿、我向來不是能言的人、就是主吩咐僕人之後、也是這樣、我本是拙口笨舌的人。

여기에서도 역시 拙이라는 글자가 사용되고 있는데 번역하면 ‘나는 본래 말을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I am a poor speaker by nature)라는 뜻이 된다. ‘말이 어눌해서 제대로 내용을 전달할 수 없다’는 의미로 볼 수 있으며, 결국에는 이것도 말주변이 없다는 의미가 된다. 여기에서 사용된 중국어 표현인 拙口笨舌은 직역하면 ‘I am slow of speech and tongue’의 뜻으로서 영어 성경을 그대로 번역한 것이라고 하겠다.

**(施約瑟淺文理譯本經文) <쉐레쉐브스키 쉬운 문리역>(1902)**

摩西對主曰、我主歟、僕素非能言者、自主命僕之後亦然、我乃拙於口拙於舌者、  
(I am the one who is clumsy of speech and tongue,)

<쉐레쉐브스키 쉬운 문리역>에서도 <브리지만-꿀벗슨역>의 경우와 똑같이 번역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상의 중국어 성경들의 번역을 살펴본 결과, MT의 기록처럼 ‘무겁다’는 의미로 번역된 성경은 없었으며, 전반적으로 ‘말주변이 없다’는 의미로 번역되었음을 알 수 있었으며, 영어 성경의 번역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성경들도 있었다. 일본어 성경과 중국어 성경들을 비교해 본 결과, 『성경개역』의 경우처럼 ‘입이 셋셋하고 혀가 둔하다’는 의미로 번역한 성경은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성경전서』의 번역 “입도 둔하고 혀도 둔한 자니이다”는 중국어 성경 <대표역본>의 영향을 받아서 번역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번역이 『성경개역』의 경우처럼 수정되어서는 안 되며, 오히려 『성경전서』의 번역으로 돌아가서 ‘입이 둔하고 혀도 둔한 자니이다’로 번역하는 것이 히브리 본문에 가장 가깝게 번역하는 길이라고 판단된다. 또는 아예 의역을 해서 ‘말을 잘 못하는 자입니다’로 번역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

### 3. 출애굽기 4:10 표현의 이해

모세의 “입이 뻗뻗하고 혀가 둔한 자”라는 표현의 뜻에 관해서는 최근에 두 가지 흥미로운 논문이 나왔다. 스트로치(C. Stroch) 외 3명이 공저하여 2019년에 나온 논문<sup>14)</sup>과 2020년에 나온 개로웨이(K. H. Garroway)가 쓴 논문<sup>15)</sup>이 그것들이다.

스트로치 등은 그의 논문에서 모세가 “heavy of mouth and heavy of tongue”이라고 자신에 관해 말했을 때, 히브리 성서에서는 일반적으로 이 표현이 그 ‘말을 더듬는다’는 뜻으로 쓰인다는 사실을 전제로 한다고 본다.<sup>16)</sup> 히브리어에서 어떤 사람이 청각장애나 시각장애를 갖고 있거나, 혹은 어색한 행동을 한다면, 이것들은 각각 “heavy of hearing, sight, movement”라고 표현된다는 것이다. 프랍(W. H. C. Propp)에 따르면, ‘입’과 ‘혀’는 가나안과 히브리 문학에 있어서 공식화되어 있는 짝이다(KTU 1.93.2-3; Isa 57:4; Ps 10:7; 37:30; 66:17, etc).<sup>17)</sup> 히브리어와 다른 고대 언어들은 종종 장애가 있는 신체기관을 “무거운”이라고 표현한다.<sup>18)</sup> 이렇게 신체적인 무게와 무거움이라는 구체적인 개념과 연관시켜서 인간의 신체장애(청력, 시력, 행동력 등)를 표현하는 것은 많은 문화권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sup>19)</sup> 흥미로운 것은 영어와 중국어는 ‘무게’와 ‘어려움’(difficulty)을 연관시키고 있다는 언어학적 연구도 있다.<sup>20)</sup>

이 연구는 장애가 비유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의 무거움’으로 표현된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만일 사람들이 무거움과 장애를 연관시키면, 그들은 무거움을 경험했을 때 그것을 ‘장애’(시력, 말더듬 등)와 더 강하게 동일시켰다는 것이다.<sup>21)</sup> 이런 연구와 연관시켜서 보면, 『개역개정』의

14) C. Stroch, et al., “‘Heavy of Mouth’ and ‘Heavy of Tongue’: Weight as a Conceptual Metaphor of Disability”, *Metaphor and Symbol* 34:4 (2019), 197-208. 이 밖에 다음 논문도 참고하라. J. H. Tigay, “‘Heavy of Mouth’ and ‘Heavy of Tongue’ on Moses’ Speech Difficulty”, *Bulletin of the American Schools of Oriental Research(BASOR)* 231 (1978), 57-67.

15) K. H. Garroway, “Moses’s Slow Speech: Hybrid Identity, Language Acquisition, and the Meaning of Exodus 4:10”, *Biblical Interpretation* 28 (2020), 635.

16) C. Stroch, et al., “Heavy of Mouth”, 197.

17) W. H. C. Propp, *Exodus*, 210.

18) “heavy of hearing”이라는 표현도 세르비아어나 크로아티아어에서는 청력을 잃은 사람을 묘사할 때 사용된다. 독일어와 노르웨이어에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을 “heavy of understanding”이라고 표현하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C. Stroch, et al., “Heavy of Mouth”, 197.

19) *Ibid.*, 198.

20) N. Yu and J. Huang, “Primary metaphors across languages: Difficulty as Weight and Solidity”, *Metaphor and Symbol* 34 (2019), 111-126.

21) C. Stroch, et al., “Heavy of Mouth”, 205.

번역은 ‘둔하다’는 표현 대신 ‘뻣뻣하다’는 표현을 사용해서 번역함으로써, 이런 ‘장애의 차원’에서 모세의 말을 이해하려는 일종의 해석에 가깝게 번역했다.<sup>22)</sup> 그리고 이런 번역은 앞에서도 언급했던 것처럼 독자들에게 모세가 입에 장애를 갖고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해 준다는 문제가 있다. *kbd*의 ‘무겁다’는 의미를 ‘장애’로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을 고려하는 것과 아예 본문 번역을 ‘뻣뻣하다’고 번역함으로써, 마치 본문 자체에 ‘장애’를 표시한 것처럼 번역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것이다. 이런 면에서 『개역개정』의 ‘입이 뻣뻣하고’는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 4:10의 모세의 표현이 모세가 ‘장애’를 갖고 있었다는 의미로 보려는 스트로치 등의 견해는 4:10에서 사용된 *kbd*의 뜻만을 지나치게 강조해서 나온 것으로 보이는데, 오히려 4:11과 4:12에 나오는 내용과 연관 지어서 그 뜻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4:11에서 여호와께서는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고 말씀하시는데, 이는 모세의 입에 장애가 있어서 이것을 고쳐줄 수 있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뉘앙스를 갖고 있다. 더구나 4:11 후반부에서도 계속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 눈 밝은 자, 맹인이 되게 하였다고 말씀하신다. 결국 이 내용만을 보면 마치 모세는 입에 장애가 있어서 말을 못한다는 뜻으로 “입이 무겁고 혀도 무겁다”고 여호와께 말을 한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4:12에 보면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라고 말씀하신다. 만일 입이나 혀 자체에 장애가 있었던 것을 모세가 말한 것이었다면, 여호와께서는 ‘내가 네 입과 혀를 고쳐주겠다’는 식으로 말씀하셨을 것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쳐 주시겠다는 것은 결국 모세는 장애 때문에 말을 잘 못하는 것이 아니라, 말 주변이 없어서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4:10의 표현을 말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여호와께서 할 말을 가르쳐주신다는 것은 말을 잘 못하는 것이나 혹은 말 주변이 없는 것은 전혀 걱정할 일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다. 따라서 모세의 4:10의 표현은 입이나 혀에 장애가 있어서 말을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말을 잘하는 능력이 없다는 의미로 보아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개로웨이의 논문을 보면 스트로치 등과는 전혀 다른 접근 방법으로 4:10의 표현을 해석하고 있다. 물론 그도 이 표현이 언어 장애(speech

22) 1978년에 나온 논문에서 티게이(J. H. Tigay)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에 대한 해석을 두 가지로 하고 있다. 첫째, 이집트어를 말할 능력이 없다는 뜻이다. 둘째, 언어 장애를 의미한다. J. H. Tigay, “‘Heavy of Mouth’ and ‘Heavy of Tongue’”, 57-58.

impediment)나 모세가 미디안에 40년 동안 머물렀기 때문에 이집트어를 유창하게 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의미가 될 수 있다는 학자들의 선행 연구들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개로웨이는 선행 연구들이 간과하고 있는 점이 있다고 보는데, 그것은 모세의 어린 시절이 그의 성장 과정에 있어서 중요한 단계(crucial stage in Moses's development: his childhood)라는 것이다.<sup>23)</sup> 모세의 독특한 어린 시절과 히브리 노예의 신분에서 이집트 왕자로 입양되는 전환(transition) 시기는 모세에게 ‘혼성 정체성’(hybrid identity)을 만들어 주었다는 것이다.<sup>24)</sup> 모세는 노예 신분이었던 히브리인 부모에게서 이집트에서 태어났고, 후에 이집트의 왕자로 입양되어 궁에서 살았으며, 이집트인을 죽이고 미디안으로 도망가서 살게 되는 기구한 운명을 타고났다. 이런 삶의 여정 속에서 모세는 히브리인인가 아니면 이집트인인가를 결정해주는 가장 중요한 지표는 ‘언어’라고 할 수 있다.<sup>25)</sup> 이런 면에서 모세는 히브리인도 이집트인도 아닌 ‘혼성 정체성’을 가지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즉, 모세의 정체성에서는 ‘언어’가 가장 중요한 요소였다고 개로웨이는 보고 있다.<sup>26)</sup>

프랍도 에스겔 3:5-6의 경우를 들어서 “heavy of tongue”이라는 표현은 외국어를 말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본다. 많은 주석가들은 모세가 이집트어를 잊어버렸다고 생각해 왔지만, 프랍은 E와 P의 경우를 구분하고 있다. P 자료에서 모세는 이집트어를 할 수 없지만, E 자료에서는 히브리어를 말할 수 없다고 보면서, 이것은 그가 이스라엘 백성과 교류가 없는 가운데 양육되었기 때문이라고 본다.<sup>27)</sup> 프랍에 따르면, 모세가 그의 소명을 반대하는 것은 이중적인 성격을 가진다. 1) 그는 말을 잘 못한다. 2) 그는 말하는 데 장애가 있다(speech-impaired). 그런데 4:12에서의 여호와의 응답(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은 ‘말을 잘 못하는 것’과 ‘장애’ 모두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었다. 모세의 이중적인 반대를 모두 잠재울 수 있는 응답이었던 것이다.<sup>28)</sup> 모세의 장애의 정확한 성격은 어떤 것이라도 될 수 있는데, ‘미약한 음성’에서부터 ‘불분명한 발음’까지 될 수 있다.

도즈만(T. Dozeman)은 여호와가 주시는 소명에 대해서 모세가 거절할 때마다 모세는 그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고 그의 어린 시절의

23) K. H. Garroway, “Moses's Slow Speech”, 635-636.

24) Ibid., 636.

25) Ibid., 637.

26) Ibid., 641.

27) W. H. C. Propp, *Exodus*, 211.

28) Ibid.

여러 시기들을 그가 앞으로 영위해야 하는 삶과 조화시키기 위해 애를 썼다고 본다.<sup>29)</sup> 모세가 말을 잘 못하는 것의 이유는 지금까지의 연구들이 보여주듯이 신체적인 장애(말을 더듬는 것)로 이해되거나 외국어를 유창하게 못하기 때문으로 이해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해석 방법은 없는 것인가? 개로웨이는 티게이(J. H. Tigay)의 연구를 인용하여 에스겔 3:5-6의 본문을 예로 들면서 히브리 성서는 외국어를 말하는 사람을 ‘무거운 입’을 가졌다거나 혹은 ‘더듬다’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근거로 삼았다.<sup>30)</sup> 메소포타미아의 자료들은 ‘무거운’이라는 단어가 ‘알아듣기 어려운’과 동의어로 사용되었으며 이는 ‘혀가 꼬였다’는 표현은 한 가지 언어에 유창하지 못할 때 쓰는 비유적 표현이라는 것이다.<sup>31)</sup>

모세가 이집트어에 더 이상 유창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소명을 거부했다는 해석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모세가 자신을 히브리인 혹은 이집트인으로 여기게 되는 문제는 그의 어린 시절의 언어를 어떤 것이라고 보느냐에 달려 있다. 즉, 어린 시절에 이집트 궁에 들어와서 왕자로 살면서 히브리어를 잊어버린 것인지 아니면 미디안 땅에서 오랜 기간 살면서 이집트어를 잊어버린 것인지를 확실하게 정리해야 한다는 말이다. 여기서 개로웨이가 사용하는 요소는 한 가지 언어의 사용 능력 ‘습득’(aquisition)과 ‘감소’(attrition)인데, 그는 출애굽기 4:10에서 언어의 감소를 읽을 수 있으며 입과 혀가 무거운 사람이라는 표현은 ‘외국어를 말하는 사람’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라고 본다.<sup>32)</sup> 그렇다면 언어 사용 능력의 ‘습득’의 경우에는 1) 모세의 어머니가 유모였을 때 어디에 살고 있었는가? 2) 그녀가 유모로서 모세를 얼마동안이나 돌봤는가? 3) 유모의 역할을 할 때 어머니는 어떤 언어를 사용했는가? 라는 요소들을 고려해야 한다.<sup>33)</sup>

모세는 자신의 어머니가 유모로서 자신을 키우는 장소가 어머니의 집이었다. 레반트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는 유모가 아이를 맡아서 돌보는 기간은 2년에서 3년이었다.<sup>34)</sup> 따라서 모세도 어머니와 함께 집에서 3년 정도 양육 받다가 궁으로 들어갔다고 볼 수 있다. 모세는 그의 생애에서 처음 3년 동안만 히브리어를 배웠다고 생각된다.<sup>35)</sup> 이렇게 어린 나이에 궁에 들어간 모세는 왕자로서 갖추어야 할 모든 지식들을 히브리어가 아닌 이집트어로

29) T. Dozeman, *Exodus* (Grand Rapids: Eerdmans, 2009), 132-133.

30) J. H. Tigay, “Heavy Mouth”, 58; K. H. Garroway, “Moses’s Slow Speech”, 645에서 재인용.

31) K. H. Garroway, “Moses’s Slow Speech”, 646.

32) *Ibid.*, 647-48.

33) *Ibid.*, 648.

34) *Ibid.*, 649.

35) *Ibid.*, 650.

교육 받게 된 것이다. ‘언어감소’의 측면에서 보면 출애굽기 4:10의 모세의 표현은 그가 이집트어가 아니라, 히브리어를 외국어처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과거의 주석가들이 내놓았던 해석과는 정반대가 되는 것인데, 그들은 모세의 어린 시절의 첫째 언어가 이집트어로 봤기 때문이다. 그러나 개로웨이는 모세의 어린 시절의 첫째 언어는 이집트어가 아니라, ‘히브리어’라고 주장한다.<sup>36)</sup> 따라서 모세가 잃어버린 언어 혹은 유창하게 말할 수 없는 언어는 ‘히브리어’라는 것이다. 슈미드(M. Schmid)의 연구에 의하면, 하나의 언어가 ‘감소’되는 이유들을 세 가지 그룹으로 구분했는데, 배경 요인들(background factors), 사용 빈도(frequency of use), 그리고 심리적인 요인들(psychological factors)로 나눈다.<sup>37)</sup> 이 연구에 따르면, 어린 시절의 첫째 언어(L1)를 0-11년 동안 사용하다가 다른 언어(L2)를 사용하는 공동체에 들어가면 L1은 성인이 되었을 때 완전히 잊어버리게 된다고 한다.<sup>38)</sup> 여러 경우에 있어서 12세 이하의 아이들이 L2 부모에게 입양되면 몇 달 사이에 그 아이들의 L1을 잊어버린다는 것을 알 수 있다.<sup>39)</sup>

‘언어 감소 이론’(language attrition theory)에 따라 개로웨이는 모세가 3세 전후에 부모님 집을 떠나면서부터 매우 빠르게 그의 히브리어를 잊어버렸을 것이라고 보고, “나는 입이 뻗뻗하고 혀가 둔한 자”라는 표현은 그가 모국어인 히브리어에 대해서 외국인처럼 느꼈다는 것을 보여주는 신호로 볼 수 있다고 본다.<sup>40)</sup> 그러나 이런 개로웨이의 주장은 4:10 전체를 놓고 보면, 쉽게 받아들이기 힘들다. 왜냐하면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10절의 전반부에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것은 히브리어 혹은 이집트어를 잊어버려서 유창하게 말하지 못한다는 의미는 아니기 때문이다. MT에는 ‘본래’라는 단어가 사용되지 않았으나, 그것을 제외하고서도 여전히 이 표현은 말 자체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뜻으로 이해된다. 이렇게 본다면, 굳이 히브리어를 잊어버려서 모세가 스스로 입이 둔하고 혀도 둔하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 말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10절 마지막에 이 표현을 덧붙인 것이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동시에 만일 모세가 의도하는 바가 히브리어를 못한다는 것이었다면, 있는 그대로 ‘나는 이스라엘 백성의 언어(히브리어)를 잘 말하지 못합니다’라고

36) Ibid., 651.

37) M. Schmid, *Language Attri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1), 87-88; K. H. Garroway, “Moses’s Slow Speech”, 650의 각주 49에서 재인용.

38) L1은 첫째 언어(first language)이며 L2는 두 번째로 습득한 언어(second language)를 의미한다. K. H. Garroway, “Moses’s Slow Speech”, 652.

39) Ibid., 654.

40) Ibid., 656.



말할 수 있었다고 본다. 분명하게 말할 수도 있는 것을 굳이 애매하게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말하는 데 소질이 없다는 뜻으로 보면 될 것이다.

밀라드(A. Millard)도 모세가 어려서부터 익힌 이집트어를 미디안에서 40년 사는 동안 잊어버렸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주장한다.<sup>41)</sup> 어릴 적에 사용했던 언어는 세월이 흘러도 기억 속에 남아 있기 마련이기 때문이다.<sup>42)</sup> 또한 만일 모세의 이집트어가 녹슬었다면, 여호와께 아론을 ‘예언자’가 아닌, ‘통역자’(mēlîš)로 세워주셨을 것이다.<sup>43)</sup> 앞에서 보았듯이, LXX는 이 표현을 “목소리가 약하고/더듬고 느리게 말하는” ‘언어 장애인’(speech defect)으로 이해하고 있다. 밀라드에 따르면, 히브리어 *kābēd*가 입과 혀와 함께 사용되면 기대했던 기능을 하는 데 있어서 부적절하거나 실패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본다.<sup>44)</sup> 밀라드는 결론적으로 여호와께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라고 명했을 때 그가 못하겠다고 한 이유는 그의 “무거운 입” 때문이었다고 보고, 이는 언어 장애(speech impediment)라고 해석한다. 아마도 심하게 말을 더듬어서 공공 연설을 할 때는 대변인(spokesman)이 필요했다고 본다.<sup>45)</sup> 개로웨이의 이해보다는 오히려 밀라드의 해석이 모세의 표현이 뜻하는 바에 가깝다고 생각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모세가 ‘장애’가 있어서 말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단정하기보다는, 단순히 모세가 ‘말주변이 없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모세의 표현을 특정한 ‘언어’의 문제나 입이나 혀의 ‘장애’를 의미한다고 보기보다는, 말하는 ‘능력’의 문제를 뜻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말이다.

이 구절에 대한 연구는 그 역사가 오래되었고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구약학자들의 주석서에 나타난 번역을 살펴보기로 하자.

41) A. Millard, “Moses, the Tongue-Tied Singer!” J. Hoffmeier, A. Millard and G. Rendsburg, eds., “*Did I Not Bring Israel Out of Egypt?*”: *Biblical, Archaeological, and Egyptological Perspectives on the Exodus Narratives* (Winona Lake: Eisenbrauns, 2016), 134.

42) 모세의 표현에 대한 또 다른 오래된 해석은 모세가 천성적으로 겸손한 데서 이런 표현이 나온 것이라고 보는 것인데, 깔뱅(J. Calvin)과 카수토(U. Cassuto), 그리고 최근의 학자로는 스투어트(D. Stuart) 등이 주장한 것이다. 또한 모세가 수사학적인 기술이 부족했다고 보는 견해도 제기되었지만, 출애굽기 본문에 비취보면 이 중의 어떤 것도 합리화하기 힘들다고 밀라드는 보고 있다. J. Calvin, *Harmony of the Law*, vol. I, Christian Classics, Ethereal Library, 81, accessed from www.ccel.org; U. Cassuto, *Commentary on Exodus*, I. Abrahms, trans. (Jerusalem: Magnes, 1967), 48-49; D. Stuart, *Exodus* (Nashville, Broadman & Holman, 2006), 133-137; R. Albertz, *Exodus*, vol. I: *Exodus 1-18* (Zürich: Theologischer Verlag, 2012), 91; A. Millard, “Moses, the Tongue-Tied Singer!”, 134의 각주 3, 4, 5에서 재인용.

43) A. Millard, “Moses, the Tongue-Tied Singer!” 134.

44) Ibid.

45) Ibid., 142.

(Childs) I am slow and hesitant in speaking<sup>46)</sup>

(Dozeman) I am heavy of mouth and heavy of tongue<sup>47)</sup>

(Houtman) I am slow of speech and tongue<sup>48)</sup>

차일즈(B. Childs)는 이 표현에 대해서 별다른 해석을 보여주지 않고, 모세가 자신이 달변가가 아니라는 것을 빌미로 하나님의 소명에 또 다시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sup>49)</sup> 도즈만도 이 표현 자체에 대해서 주목하지 않고 있으며, 단순히 모세가 자신의 언변이 좋지 않다(*he lacks rhetorical skills*)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한다.<sup>50)</sup> 그러나 그는 다른 주석가들이나 영어 성경들과는 다르게 히브리어 *kbd*를 그대로 직역하고 있다는 점은 참신하다.

하우트만(C. Houtman)의 견해로는 모세가 자신이 유창하고 남을 설득시킬 수 있는 연설가는 아니고, 그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sup>51)</sup> 따라서 4:10의 이 표현은 출애굽기 3:13 이하부터 계속되는 하나님의 소명주심에 대한 모세의 일련의 반대 이유들에 포함되는 또 하나의 ‘반대’라고 주장한다.<sup>52)</sup> 여호와를 만난 이후에도 그의 말하는 능력이 향상되지 않았다고 암시적으로 하나님을 비판하는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렇게 말을 잘 못하는 자신을 이스라엘의 인도자로 보내려는 것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하나님의 의견에 정면으로 반대하는 것이라고 본다.

또한 하우트만은 모세가 이 표현을 통해서 그가 말하는 데 서툴다는 것 이상의 구체적인 것을 의미하고 있다고는 보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그가 이집트를 떠난 지 40년이나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유창한 이집트어를 할 수 없었다거나 그런 면에서는 히브리어도 잊어버렸다고 하는 해석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또한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살면서 다른 사람들과 접촉할 기회가 별로 없었고 그래서 그가 말하는 능력을 발전시킬 수 없었을 것이라는 견해도 동의하지 않는다.<sup>53)</sup>

따라서 모세가 말을 잘 못한다는 것(*Moses' lack of eloquence*)을 표현하고

46) B. Childs, *Exodus*, 49.

47) T. Dozeman, *Exodus*, 117.

48) C. Houtman, *Exodus*, 322.

49) B. Childs, *Exodus*, 78.

50) T. Dozeman, *Exodus*, 142.

51) C. Houtman, *Exodus*, 408.

52) *Ibid.*, 409.

53) *Ibid.*, 408-409.

있는 것이 4:10에 사용된 *kbd*의 뜻임을 알 수 있는데, 정작 왜 모세는 말을 잘 못한다고 말하고 있는지에 관해서는 크게 두 가지의 해석이 맞서고 있다. 1) 언어 능력 부족; 2) 히브리어 능력 부족. 그런데 1)의 경우에는 그 원인을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장애’로 인한 것과 ‘말주변’이 없는 것이 그것이다. 이 두 가지의 이유 중에서 본 연구에서는 ‘언어 능력 부족’으로 보는 해석을 선호하고 그중에서도 ‘말주변’이 없다는 의미가 설득력이 있다고 본다. 모세는 “저는 입이 무겁고 혀도 무겁습니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자신이 말을 잘 못한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출애굽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과 바로에게 전해야 하는 책임이 있는데, 이것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말을 잘하는 것이고 이 능력이 모세 자신에게 결여되어 있다고 여호와께 말씀드리는데는 것이다.

#### 4. 결론

성경을 번역한다는 것은 언제나 새로운 도전이고 끊임없는 고민과 선택을 요구하는 지난한 작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서학자는 마땅히 이 길을 기꺼이 걸어가야 하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 논문에서 다룬 출애굽기 4:10에 나오는 모세의 말(“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은 MT의 뜻에 맞게 새롭게 번역되어야 할 대상이 된다. MT는 ‘나는 입이 무겁고 혀도 무거운 사람입니다’라는 뜻을 전해 주고 있다. 그런데 『성경전서』(1911)를 번역한 선교사들과 한국인 조사들은 MT를 직접 참고해서 번역한 것이 아니라, 번역 성경인 영어, 중국어, 일본어 성경들을 참고해서 번역했다는 것이 학계의 주도적인 이론이라고 할 때, 이 구절도 이런 성경들의 영향을 살펴보는 것이 순서가 될 것이다. 먼저, 초창기의 영어 성경들부터 현대판 영어 성경들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이 “slow of mouth and of tongue”으로 번역되어 있다. 즉 히브리어 *kbd*가 ‘느린’이라는 의미로 번역되었음을 보여주는데, 사실 이것은 히브리어 단어의 뉘앙스를 그대로 옮긴 것이라고 보기는 힘들다. 그러나 *kbd*가 가진 ‘무겁다’는 의미를 ‘느리다’의 의미로 이해해서 ‘말을 잘 못한다’는 뜻으로 번역한 것이라고 볼 수는 있다. 이런 의미에서 영어 성경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다기보다는 간접적인 영향을 받아서, ‘느리다’는 영어 성경의 번역을 ‘둔하다’로 이해해 『성경전서』가 “입도 둔하고 혀도 둔한 자니이다”로 번역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중국어 성경들에 대한 분석 결과, 비록 重이라는 한자가 사용된 성경은 찾을 수 없었지만, 대신 拙이라는 글자가 <대표역본>(1856) 이후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글자는 입이나 혀가 ‘둔하다’는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성경전서』의 “입도 둔하고 혀도 둔흔자니이다”라는 번역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다. 최초의 우리말 성경의 번역이 무슨 이유로 히브리어 원문에 있는 대로 ‘무거운’(kbd)의 뜻이 아니라, ‘둔한’(拙)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번역했는지에 대한 근거를 알 수 있게 해 준다. 단지 『성경개역』(1938)의 번역에서부터 이 구절의 번역이 “입이 썩썩하고 혀가 둔한자니이다”로 수정된 것은 아쉬운 일이라고 생각되는데, 이는 MT의 의미를 제대로 전달하지도 않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똑같은 kbd 라는 히브리어가 사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는 “뻣뻣한”으로 번역하고 또 하나는 “둔한”으로 번역한 것은 반쪽짜리 번역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의미에서 원래의 『성경전서』의 번역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오히려 일본어 성경의 경우에는 <메이지역>(1887)에서 重이라는 글자가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중국어 성경들의 영향권에서 벗어나서 나름대로 MT의 뜻을 그대로 번역하려는 시도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메이지역>의 번역자들은 중국어 성경이나 영어 성경들의 번역을 참고해서 그것들 중에서 취사선택한 것이 아니라, MT도 참고하면서 보다 히브리어 원문에 가까운 번역을 시도했음을 알 수 있다.<sup>54)</sup>

결론적으로 보면 출애굽기 4:10의 표현은 최초의 우리말 번역 성경인 『성경전서』의 번역대로 다시 환원시켜서 번역하여 ‘나는 입이 둔하고 혀도 둔한 자입니다’로 번역하든지, 아니면 아예 의역을 해서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라고 번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결국 모세가 말한 4:10의 표현의 의미는 1) ‘장애’나 ‘언어 능력 부족’ 때문에 말을 잘 못하는 경우, 2) 히브리어를 못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기 힘든 경우로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4:10의 전반부에 나오는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라는 내용이 중요한 근거가 되고, 동시에 4:12의 “할 말을 가르치리라”는 여호와의 말씀이 또 다른 근거로 사용될 수 있음을 살펴보았다. 따라서 필자는 위의 두 가지 가능성들 중에서 입이나 혀의 ‘장애’ 때문이라기보다는, ‘말 주변’이 없어서(언어 능력 부족) 말을 잘 못한다는 의미를 전달하려고 모세가 이 표현을 사용했다고 보는 해

54) 필자의 최근의 연구를 참고하라. 장석정, “『성경전서』(1911)의 복합적 번역대본 가능성 — 출애굽기 4:8을 중심으로 —”, 『성경원문연구』 49 (2021), 7-28.

석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된다.

<주제어>(Keywords)

출애굽기 4:10, 모세, 『성경전서』, 새로운 번역, 칠십인역.

Exodus 4:10, Moses, The Complete Bible in Korean, New Translation, LXX.

(투고 일자: 2022년 6월 23일, 심사 일자: 2022년 8월 26일, 게재 확정 일자: 2022년 9월 7일)

## &lt;참고문헌&gt;(References)

- 『취리히성경해설 성경전서 개역개정판』, 서울: 대한성서공회, 2021.
- 김정우, “우리말 초기 「시편」 번역본들(『시편촬요』[1898], 『성경전서』[1911])과 『개역』(1938)의 대본 문제와 번역 특징 및 그 수용 과정에 대한 기초 연구”, 『성경원문연구』 28 (2011), 7-34.
- 류대영, 옥성득, 이만열, 『대한성서공회사 II: 번역·반포와 권서사업』, 서울: 대한성서공회, 1994.
- 민영진, 『성서가 우리에게 오기까지』, 서울: 대한성서공회, 1995.
- 요우빈, “왕타오, 중국어 성경 번역과 그의 해석학 전략”, 구향화, 이환진 역, 『성경원문연구』 37 (2015), 273-291.
- 장석정, “『성경전서』(1911)의 번역대본 가능성— 출애굽기 4:13을 중심으로 —”, 『성경원문연구』 48 (2021), 7-25.
- 장석정, “『성경전서』(1911)의 복합적 번역대본 가능성— 출애굽기 4:8을 중심으로 —”, 『성경원문연구』 49 (2021), 7-28.
- Cassuto, U., *A Commentary on the Book of Exodus*, I. Abrahams, trans., Jerusalem: Magnes, 1967.
- Childs, B. S., *The Book of Exodus: A Critical, Theological Commentary*, OTL,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1974.
- Cohen, D. B., *The Japanese Translations of the Hebrew Bible: History, Inventory and Analysis*, Handbook of Oriental Studies, Leiden: Brill, 2013.
- Dozeman, T., *Exodus*, Eerdmans Critical Commentary, Grand Rapids: Eerdmans, 2009.
- Garroway, K. H., “Moses’s Slow Speech: Hybrid Identity, Language Acquisition, and the Meaning of Exodus 4:10”, *Biblical Interpretation* 28 (2020), 635-657.
- Houtman, C., *Exodus*, vol. 1, Kampen: Kok Publishing House, 1993.
- Millard, A., “Moses, the Tongue-Tied Singer!” Hoffmeier, J., Millard, A., and Rendsburg, G., eds., “*Did I Not Bring Israel Out of Egypt?*”: *Biblical, Archaeological, and Egyptological Perspectives on the Exodus Narratives*, Winona Lake: Eisenbrauns, 2016, 133-142.
- Propp, W. H. C., *Exodus 1-18*, AB, New York: Doubleday, 1999.
- Sarna, N. M., *Exodus*, Philadelphia: The Jewish Society Publication, 1991.
- Schmid, M., *Language Attri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1.
- Stroch, C., et al., “‘Heavy of Mouth’ and ‘Heavy of Tongue’: Weight as a Conceptual Metaphor of Disability”, *Metaphor and Symbol* 34:4 (2019), 197-208.

Tigay, J. H., "'Heavy of Mouth' and 'Heavy of Tongue' on Moses' Speech Difficulty", *BASOR* 231 (1978), 57-67.

Utzschneider, H. and Oswald, W., *Exods 1-15*, IECOT, Stuttgart: Kohlhammer, 2015.

<Abstract>

**A Translation Proposal and Understanding of Exodus 4:11:  
Focused on the expression, “I am heavy of mouth and tongue”**

Sok-Chung Chang

(Catholic Kwandong University)

Translating a biblical passage is always a new challenge and difficult task that requires continuous thinking and choosing. Nevertheless, biblical scholars have the responsibility to willingly walk that path. In this article, I deal with Exodus 4:10 where Moses refuses YHWH’s calling by saying, “I am heavy of mouth and tongue.” The Korean Bible (1911) translates this sentence as “입도 둔하고 혀도 둔한 자이다”, which means “I have clumsy mouth and a tongue.” The Korean Revised Version (1938) reads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이다”, which means “I am stiff of mouth and clumsy of tongue.” The MT reads “I am heavy of mouth and heavy of tongue”, but the foreign missionaries and their Korean assistants who worked on The Korean Bible did not know Hebrew, so they did not consult MT when they translated Exodus into Korean. Instead, they consulted Bibles in English, Chinese, and Japanese available at the time of translation. Therefore, I will look into these Bibles, and try to find some influences from them.

First, English Bibles translate the phrase as “slow of mouth and tongue”. This means the Hebrew word *kbd* was translated into *slow* instead of *heavy*. So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first Korean Bible and those English Bibles seems to be very weak. Second, the Chinese Bibles did not use the word 重 (meaning heavy), but instead used 拙 since the publication of the Delegates’ Version (1856). This Chinese character 拙 means *slow* or *clumsy*. Therefore these Chinese Bibles could have influenced The Korean Bible (1911). It was tragic when this translation was changed in the Korean Revised Version (1938) without any reasonable basis. The latter translation does not carry the MT meaning at all.

In the case of the Japanese Bibles, Meiji Version (1887) uses the word 重, and it shows that the Japanese Bible translators got away from the influences of the Chinese Bibles and walked in their way. They might have tried to translate the



sentence from MT. They did not choose the suitable translations from available Bibles (English, Chinese), but tried to translate the sentence as closely as possible to MT. In conclusion, Moses's words in Exodus 4:10 needs to be either retranslated like the one in The Korean Bible (1911) or to do a round translation like "I am not eloquent."